

노년층 경제적 부담 줄이고 양육지원 늘려



올해 바뀌는 복지제도

해가 넘어가면 바뀌는 제도가 많다. 복지제도도 마찬가지다. 복지제도의 목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복지계의 화두는 단연 저출산고령화다. 지난해부터 공청회를 여는 등 보건복지부에서도 상황을 개선해 나가 고자 제도들을 준비하고 있다. 짧고 활력있는 미래사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응전략도 여러 가지 내놓고 있다. 새해 바뀌거나 확대되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복지제도를 소개한다.



■기초노령연금 시행=기초노령연금제도란 전체 노인의 60%, 즉 30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대우하겠다는 제도다. 매월 2만~8만4000원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된다.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재산이나 소득을 가지고 판단한다. 65세 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60%를 선정하는데, 이 기준은 월소득인정액이 독거노인의 경우 월 40만원 이하, 노인 부부의 경우 월 64만원이하일 경우다.

올해 2월부터는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올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2009년에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전체 노인의 70%로 확대되고 그에 따라 약 62만명이 추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들고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원에서 하면 된다. 위임장이 있다면 가족의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올해 7월부터

재산·소득 하위 60% 노인 대상 노령연금 시행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전국 65개 지역으로 확대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의 경제적·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든 세대에겐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을 위한 제도지만 전체 국민 삶에 영향을 주는 제도다.

한성대 사회복지학과 황진수 교수는 "노인인구의 8.3%인 4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현재 시설은 미인가시설까지 포함해 약 3만3000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어 빨리 시행돼야 할 제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된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월 2500원 내외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건

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수혜자의 경우 시설서비스는 20%, 재가 서비스는 15%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파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확대=보건복지부 사업이 아닌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야근·질병·출장 등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의 안전한 양육은 물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됐다. 이 제도는 전국 38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경진 기자

아이돌보미 사업 대상은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이며 ▲보육시설·학교 등 등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 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러나 가사활동까지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인근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해 일정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 가족은 시간당 1000원, 일반 가족은 5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을 원한다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02-3141-5477)에 문의, 가장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tip 복지부 콜센터 번호는 '129'

더 많은 저출산고령화 정책·정보를 원하거나 이밖의 다른 복지 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를 해보자. 어떤 보건복지 관련 정책도 설명을 해준다. 국번없이 129만 누르면 된다. 홈페이지(www.129.go.kr)에서도 자세한 정보는 물론,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월요일 보훈병원, 화요일 승가원장애아동시설, 목요일 묘현원, 수·금·토요일 동대문시립노인복지관, 봉사자 장숙자(64)씨의 봉사 시간표다. 약제실 봉사부터 목욕·청소 등 전선후다. 무려 주 6일 시간표를 보는 순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가시질 않는다. 듣는 사람마다 깜짝 놀란다. 그런 사람도 있으며, 놀라는 사람들에게 장씨는 말한다. 봉사는 삶을 지켜주는 원동력이라고.

“봉사는 내 삶의 원동력”

9 봉사자 장숙자씨

봉사활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도 찾기 어렵다. 굳이 따져보니 약 30년간 살았던 충남 논산에서 30대 중반부터 마을 부녀회장을 맡은 것이 시초다.

독거어르신들에게 김치를 담가드리고 빨래 등 집안일을 해드리는 것이 그저 기뻐하는 장씨. 그것이 봉사의 시작인지도 모르고 그냥 '되고 싶다'는 마음 뿐이었다.

그러다 46세에 장애인시설 성모마을에 우연히 다니기 시작했다. 5년 이상 가족들도 모르게 혼자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그런 그의 마음 속에 드는 생각 하나.

“수녀님들과 함께 일을 하며 ‘아, 우리 불교에는 왜 이런 시설이 없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아쉬웠죠.”

그래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생기고, 봉사교 육 과정이 개

시작됐을 때 그렇게 반가웠는지도 모르겠다. 당장 봉사자로 등록하고 자정정사원 모회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다 2006년부터 승가원장애아동시설에도 나가게 됐다. 그렇게 하나하나 늘어난 봉사처를 모두 풀어안다 보니 '6일 봉사자'가 된 것이다.

장씨의 별명은 '월명정(月明淨)'이다. 달처럼 밝게, 맑게 살라는 의미다. 의미대로 살아가려하지만 가끔은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힌다. 바로 남편 때문이다. 장씨의 남편은 2000년 말, 후두암 판정을 받고 이듬해 수술을 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지만 합병증이 뒤따랐다. 걷지도 못할 정도로 상황은 악화됐다. 특히 2005년 5월을, 장씨는 잊지 못한다. 뇌경색으로 혼수상태까지 올 정도로 남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씨는 흔들렸다. 그래도 봉사를 놓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처럼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살폈다.

“시설 할머니들이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요. 그 덕을 많이 봤죠.”

덕을 봤다는 말은 남편의 건강을 뜻한다. 운신도 못하던 남편이 얼마 전부터는 조금씩 걸어도닐 수 있게 됐다. 마음과 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생긴 지 거의 아 니런 무얼까.

장씨 자신 설했을 때 그렇게 반가웠는지도 모르겠다. 당장 봉사자로 등록하고 자정정사원 모회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다 2006년부터 승가원장애아동시설에도 나가게 됐다. 그렇게 하나하나 늘어난 봉사처를 모두 풀어안다 보니 '6일 봉사자'가 된 것이다.

장씨의 별명은 '월명정(月明淨)'이다. 달처럼 밝게, 맑게 살라는 의미다. 의미대로 살아가려하지만 가끔은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힌다. 바로 남편 때문이다. 장씨의 남편은 2000년 말, 후두암 판정을 받고 이듬해 수술을 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지만 합병증이 뒤따랐다. 걷지도 못할 정도로 상황은 악화됐다. 특히 2005년 5월을, 장씨는 잊지 못한다. 뇌경색으로 혼수상태까지 올 정도로 남편

“젊었을 때 봉사할 걸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해요. 참 행복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봉사현장에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글·사진=김경진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교화팀과 인연 맺은

최고수 3명 무기징역 감형

다하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 교화팀이 활동하는 서울구치소에서 3명의 최고수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는데 이 중 2명이 이들과 인연맺은 불자들이어서다. 불교여성개발원 교도소교화팀은 2000

년 개원 직후부터 독서·영상·음악·미술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 재소자 교화활동에 앞장서 왔다. 특히 2001년부터는 사형선을 앞둔 최고수들을 대상으로 '최고수를 위한 1000일 기도'를 시작했

다. 이번 특별 사면은 2000일 기도 회향일인 1월 27일을 앞에 두고 일어난 일이라 더욱 뜻 깊다.

교도소교화팀은 “2004년 1000일 기도 회향 때도 1명의 최고수가 무기수로 감형 받았는데 다시 기쁜 소식을 듣게 돼 감사할 뿐”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불교여성개발원 교도소교화팀은 1월 28일 서울구치소에서 '최고수를 위한 2000일 기도 회향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02)722-2101 김경진 기자

“무기수로 감형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시 사는 마음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으로 선정된 가운데 지난해 말,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막 특별사면을 통해 형 확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형수를 대상으로 죄질·범정·수행태도 등을 검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그러던 중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에도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혼란함

탄허기념 박물관 기공식

탄허대종사의 유지를 받든 탄허기념박물관 기공식에 모십니다. 나라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고자 발원하셨던 탄허대종사의 유지를 계승하여 “탄허기념 박물관 기공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8년 1월 25일(금) 11:00~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85번지
주최 : 탄허불교문화재단, 오대산 월정사, 금강선원
후원 : 불교 TV, 불교방송,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문의 : 02)445-8484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입종 안내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지방총무원 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 증빙서류(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 외부)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소: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총무원 (051)527-5431~2 팩스 (051)527-7733
- 경남총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 중부총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 제주총무원 (064)724-0318~9 휴대폰 019-522-0318